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2.14)

1. 미국, 바이오연료 생산 프로젝트

1) USDA 보도자료 (2009.12.04) 주요 내용

- 미국 에너지부 장관 Steven Chu와 농무부 장관 Tom Vilsack은 미국 회복및재투자법안(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, ARRA)을 근거로 5억 6,4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**19개 바이오정제(Biorefinery) 프로젝트를 선정함.**
 -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보다 발전된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전기 등의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, 각 프로젝트들은 소규모 실험단계, 시범사업 규모, 상업화 규모 시설 등 다양한 규모의 시설물에서 이루어지게 됨.
 - 이번 프로젝트는 15개 주에서 시행되며, 미국 내 바이오매스 산업이 상업화 수준의 규모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- 또한 궁극적으로 수입 원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여러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,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 미국 농촌을 새로이 건설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
 - Steven Chu 에너지부 장관은, 보다 깨끗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진보된 바이오연료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
- 두 장관은 이와 별개로 바이오정제 보조 프로그램(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)을 통해 최대 5,45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정제 프로그램도 선정함.
 - 2008 농업법(Farm Bill)에 의해 발의된 바이오정제 보조 프로그램(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)은 ARRA법에 의해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음.

- 그 이전에 제공된 지원금을 이용, 옥수수 이외 곡물의 전분에서 나온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.
 - 농업법을 근거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, 농업 및 환경 배출물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확장하게 될 것임.
- ARRA법에서 지원하기로 한 5억 6,400만 달러 중, 최대 4억 8,300만 달러는 14개 소규모 실험단계 시설과 4개의 시범사업규모 시설에 투입됨.
- 나머지 8,100만 달러는 기존에 예산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던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에 투입됨.
 - 이들 시설 중 일부는 7억 달러 상당의 민간 투자액과 결합 추진되어, 실제 사업총액 규모는 13억 달러가 넘는 수준임.
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한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상품의 생산은 기존에 원유를 이용한 연료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연료표준(Renewable Fuel Standard, RFS)에서 지정한 바이오연료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임.